

미래에셋증권 Daily

▶ TODAY'S REPORTS

Mirae Asset FI Weekly

민지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대용 전략 유지

기업분석

인텔(INTC US) - 류영호: Alder Lake, 반격의 신호탄이 될까?

주체별 매매동향

KOSPI: 외국인 (-)2,769억원 순매도, 국내기관 (+)834억원 순매수

KOSDAQ: 외국인 (-)538억원 순매도, 국내기관 (+)1,353억원 순매수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II

2021. 10. 7 (목)

리서치센터

KOSPI (10/6)	2,908.31P(-53.86P)
KOSDAQ (10/6)	922.36P(-33.01P)
KOSPI200 (10/6)	381.93P(-6.08P)
미국 DowJones지수 (10/6)	34,416.99P(+102.32P)
미국 NASDAQ지수 (10/6)	14,501.91P(+68.08P)
중국상해종합지수 (9/30)	3,568.17P(+31.88P)
NIKKEI225지수 (10/6)	27,528.87P(-293.25P)
유럽 STOXX600지수 (10/5)	451.33P(-4.70P)
독일 DAX지수 (10/6)	14,973.33P(-221.16P)
VIX (10/6)	21.00P(-0.30P)
원/달러 환율 (10/6)	1,192.70(+3.91)
엔/달러 환율 (10/6)	111.41(-0.05)
달러/유로 환율 (10/6)	1.16(0.00)
국고채 수익률(3년) (10/6)	1.72(+0.07)
미국채 10년 (10/6)	1.53(0.00)
독일국채 10년 (10/6)	-0.18(+0.01)
금가격 (10/6)	1,760.50(+0.90)
구리가격 (10/5)	9,090.00(-180.00)
유가(WTI) (10/6)	77.43(-1.50)
국내주식형펀드증감 (10/4)	0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 (10/4)	0억원
고객예탁금 (10/5)	708,794억원(+11,048억원)
신용잔고 (10/5)	244,807억원(-1,031억원)
대차잔고 (10/6)	776,245억원(+40,958억원)

주: 현지 시간 기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대응 전략 유지

민지희 jihee.min.a@miraeasset.com

FI Check Point

미국 8월 PCE 전년비 +4.3% 기록,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

- 8월 PCE 전년비 +4.3%, 핵심PCE 전년비 +3.6%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부담 여전. 내구재를 포함해 상품 지출 늘어나면서 미국 PCE 상승을 견인
-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미국 인플레 지속 우려
- 공급 병목,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부각시키며 미국 경제 회복 모멘텀 약화 우려에 미국 10년 금리 추가 상승세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Fixed Income
Market Issue

9월 미국 고용지표 호조는 11월 테이퍼링 시작을 지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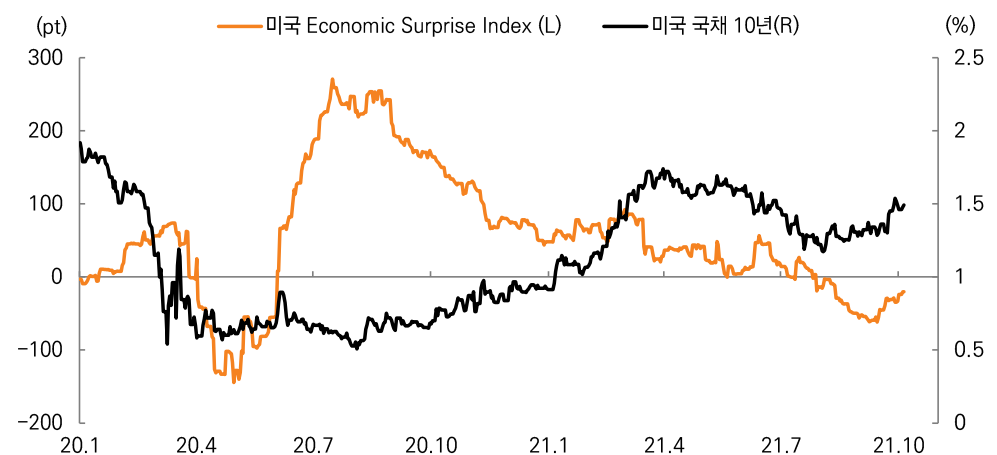
- 10/8(현지시간)일 9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예정, 예상치는 48만명 증가 전망
- 8월 고용은 부진했으나, 연초부터 3개월 평균 50만명의 일자리 증가세는 지속됐음. 시장 예상대로 고용자 수가 증가한다면 연준의 11월 테이퍼링 시작이 가능해 질 것
- 9월 초 팬데믹 실업급여가 종료됐다는 점에서 9월에는 구직 활동 증가했을 것. 기존 전망대로 8월 고용은 일시적 충격, 단기적으로 일자리 회복세는 높을 것으로 판단

Strategy

10월 금통위 금리 동결 전망, 원화 단기채권 저가매수 기회 활용 전략 유지

- 10월 금통위 이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돼 금리 반락하겠으나, 한은의 매파적 기조에 주목하며 금리 하락폭 제한 전망
- 기준금리 2차례 인상 가능성 선반영한 국고 3년 금리 레벨 메리트 높으며, 원화 단기 채권의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
- 장기채권은 FX 시장 및 글로벌 금리 흐름 관망하며 대응하는 것이 적절

그림 1. 미국 경기 회복 모멘텀 연초 대비 약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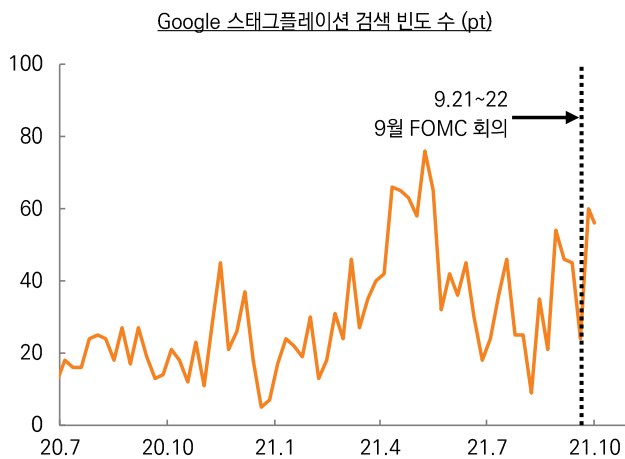
1.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 미 장기금리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1) 통화정책 긴축 및 미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안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

9월 FOMC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그림2). 더불어 8월 PCE 물가지수도 전년비 +4.3%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갔고,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미국 10년 금리는 소폭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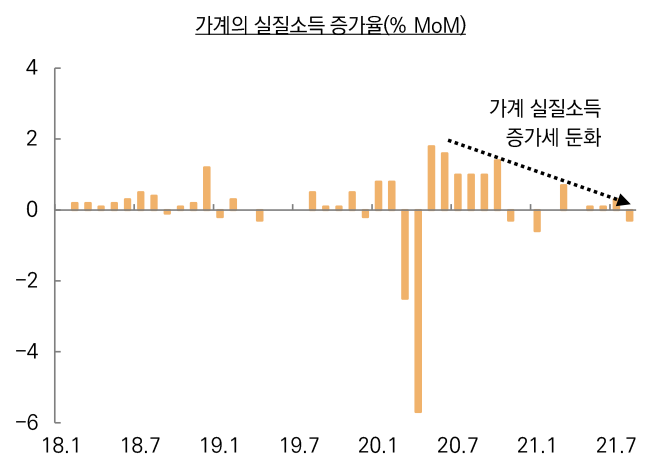
우리는 기존의 전망대로 미 국채금리가 연말까지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을 반영해 상승하겠으나, 미국 장기금리는 현 수준에서 박스권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연준 출구전략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부담에 위험 선호 심리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미 국채 금리 추가 상승을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9월 FOMC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다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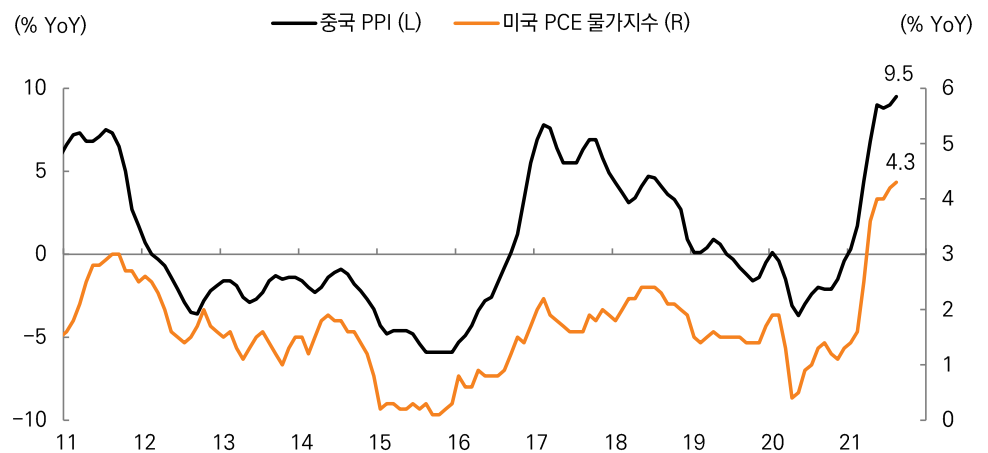
자료: Googl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최근 미국 가계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원자재 가격 크게 상승하며 중국 PPI 상승 견인 및 미국 높은 인플레이션 부담 이어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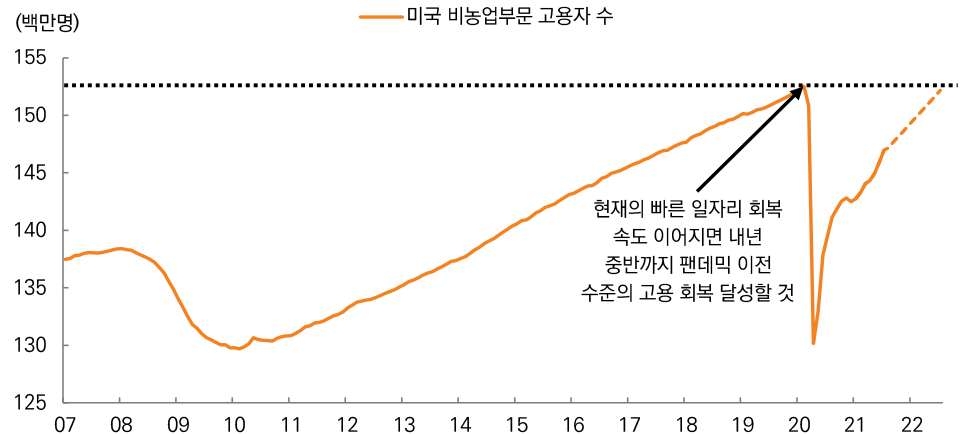
2) 9월 미국 비농업 고용 회복, 11월 테이퍼링 시작을 지지할 것

이번 주 금요일에는 9월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FOMC 기자회견담회에서 “매우 강력한” 고용 보고서일 필요는 없으나, “그런대로 괜찮은(decent)” 고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즉, 시장 예상대로 9월 비농업 고용 수준이 48만 명 정도로 증가하는 경우, 기존에 언급한대로 연준은 11월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그림5).

8월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연초부터 비농업 고용자 수는 3개월 평균 50만 명씩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의 미국 일자리 회복세가 이어지는 경우,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시점인 내년 6월 말까지 팬데믹 이전의 고용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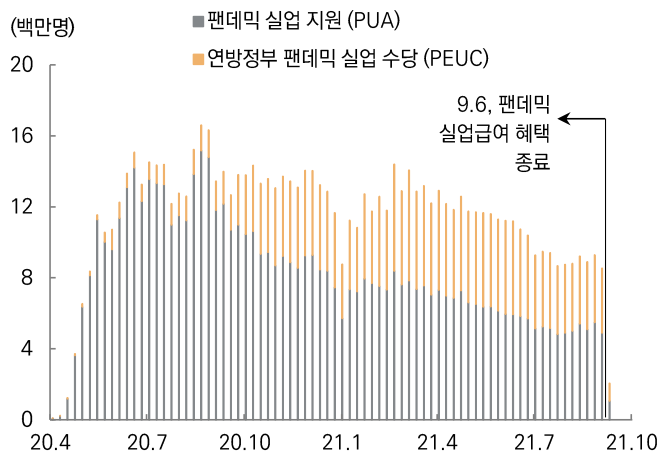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팬데믹 실업 지원이 종료되면서 약 750만명이 실업수당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림6). 현재 팬데믹 이전까지 약 530만명의 일자리 회복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팬데믹 실업 보조금 종료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9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비 4.6%, 전월비 0.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경우 인플레이션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림 5. 9월 비농업고용 48만 명 증가 예상, 연초부터 3개월 평균 50만 명의 고용 회복세 이어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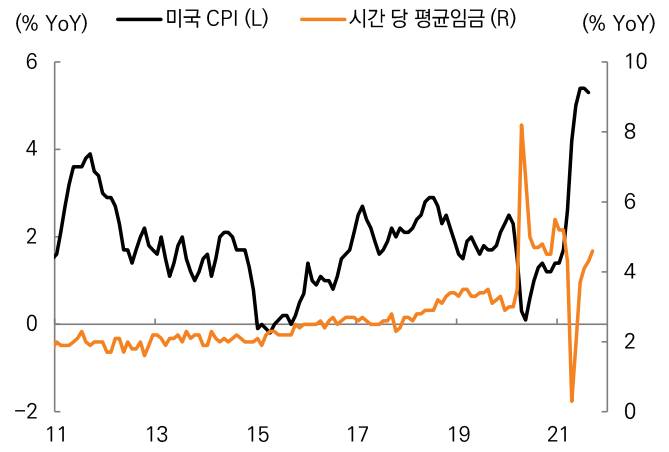
자료: US BLS,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워싱턴포스트, 약 750만명이 실업 지원 혜택 상실할 것으로 전망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높은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 부담 심화시킬 우려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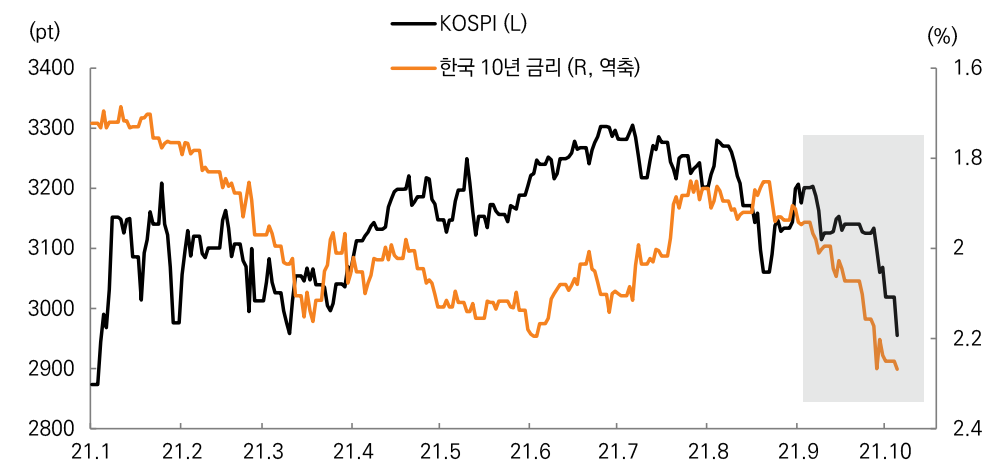
2. 10월 국내 채권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1) 10월 금통위 Preview

국내 금리 레벨 메리트에도 금리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주 미 국채 10년 금리가 경기 회복세 Peak-out 우려에 소폭 반락했음에도 국내 장기금리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등 커브 스틱 흐름을 보였다. 이처럼 국내 채권 금리가 미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매파적 스탠스 및 원화 환율 흐름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여전히 10월 금통위 금리 동결 및 11월 25bp 한 차례 인상을 전망하며 연말 국내 기준금리 1.00%, 내년 대선 이후 2Q 중 한 차례 추가 인상으로 내년 중반에는 기준금리가 1.2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미국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속해서 10월 금통위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 보다는 국내 3Q GDP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한 다음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림 8. 국내 주식 및 채권 가격 함께 하락하며 Risk-off 심리 부각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 국고 3년 금리 대비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흐름

	현재	-1W	-2W	-1M	-3M	-6M
회사채 AA+	38.7	-1.5	0.7	2.5	8.5	9.2
회사채 AA0	41.7	-1.5	0.7	2.5	8.5	9.3
회사채 AA-	44.8	-1.5	0.7	2.5	8.5	8.6
회사채 A+	59.9	-1.5	0.7	2.1	5.7	-3.0
회사채 A0	88.2	-1.6	0.6	2.0	5.8	-3.2
공사채 AAA	20.4	-1.6	0.5	-0.3	3.9	3.9
공사채 AA+	27.8	-1.6	0.5	-0.3	4.2	4.2
은행채 AAA	22	-1.7	0.1	-0.3	3.9	4.2
은행채 AA+	29.7	-1.7	0.1	-0.3	3.9	4.2
은행채 AA	54.8	-1.7	0.1	-0.3	3.9	4.2
카드채 AA+	45.4	-0.4	2.9	5.1	13.2	15.2
카드채 AA	48.9	-0.4	2.9	5.0	13.3	14.6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주: 크레딧 3년물 기준

2) 10월 금통위 이후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겠으나 금리 하락폭 제한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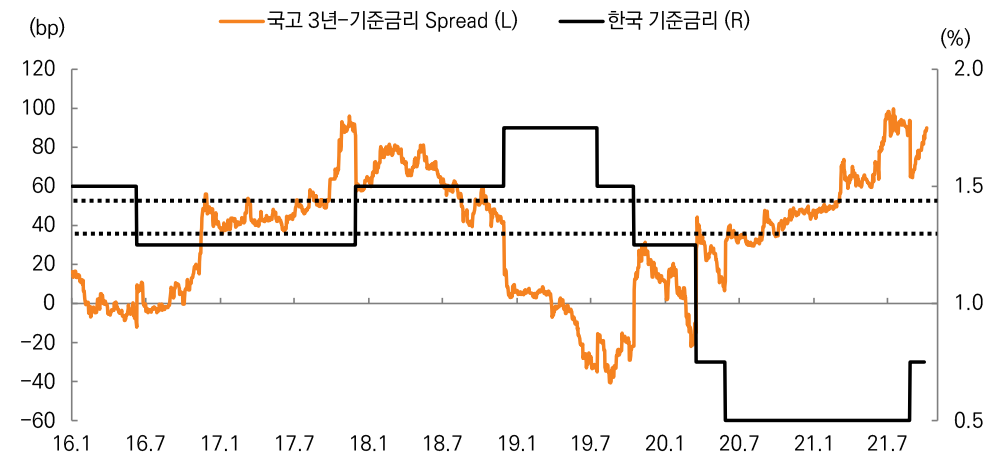
먼저 10월 금통위를 소화한 이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지금보다는 명확해지면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국내 금리는 소폭 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0월 금리 동결 시 기준금리는 내년 중반 1.25%까지 인상 후 소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여전히 장기물 대비 단기금리의 레벨 메리트가 높다는 입장이며, 단기채권을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을 유지한다. 한편, 10년 금리는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 이후에도 큰 폭의 하향 되돌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원화 환율 및 글로벌 금리 흐름을 관망하는 전략이 적절하겠다.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내년도 기준금리가 1.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여전히 FX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통위 이후에도 국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며 커브 플랫 전환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원화 단기채권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유지한다.

현재 국고 3년 금리는 전일(10/5) 기준 1.65%까지 상승하는 등 기준금리 1.25% 인상 가능성을 프라이싱하면서, 1.25%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를 고려할 때 40bp 정도의 스프레드를 보이고 있다. 과거 국고 3년과 기준금리 스프레드를 확인할 때, 한은의 금리 인상 혹은 인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스프레드는 약 40bp 내외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그림9).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미 기준금리 2번의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한 국고 3년 금리는 금통위를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여전히 3년물 금리 레벨 메리트가 더 높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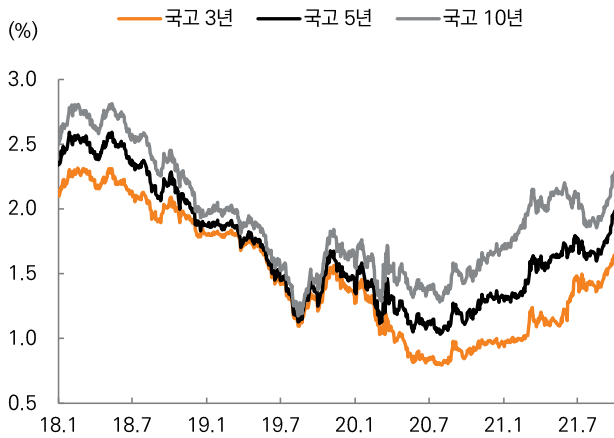
그림 9. 한은 금리 인상 혹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경우 국고3년-기준금리 스프레드는 40bp 내외 등락 흐름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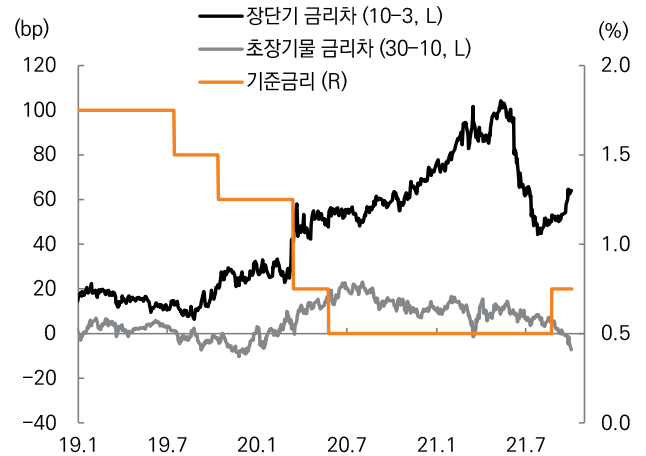
Fixed Income Market Chart

그림 10. 국고채 주요 금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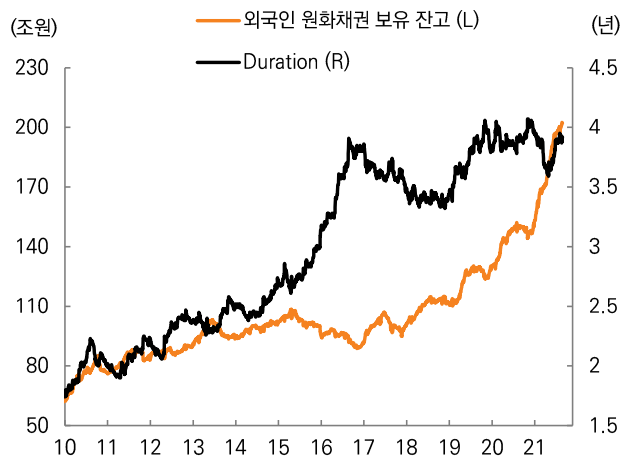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외국인의 원화채권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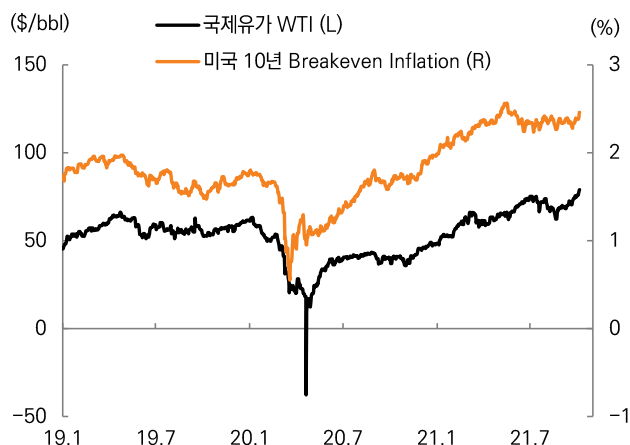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EMBI 스프레드와 미국 장기금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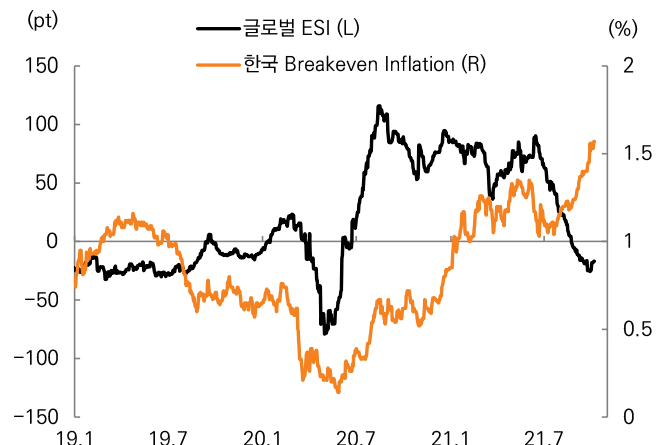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WTI 가격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글로벌 경제와 한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Market Monthly Schedul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0/3	4 (한국) 휴장 (중국) 휴장 (호주) 휴장	5 (한국) 국고채 30년물 입찰 (2.8조원)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중국) 휴장	6 (중국) 휴장	7 (중국) 휴장	8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지표	9
10	11 (한국) 휴장 (미국) 채권, 선물시장 휴장	12 (한국) 한국은행 10월 금통위 국고채 3년물 입찰 (1.2조원) (미국) 국채 3년물 입찰 (580억달러) 국채 10년물 입찰 (380억달러)	13 (한국) 국고채 2년물 입찰 (0.8조원) (미국) 9월 CPI 발표 국채 30년물 입찰 (240억달러)	14	15 (한국) 국고채 20년물 입찰 (0.35조원)	16
17	18 (한국) 국고채 10년물 입찰 (1.3조원)	19	20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 (240억달러)	21 (미국) TIPS 5년물 입찰 (190억달러)	22 (한국) 국고채 10년물 입찰 (0.1조원)	23
24	25 (한국) 국고채 5년물 입찰 (1.9조원)	26 (한국) 국고채 20년물 입찰 (0.45조원) (미국) 국채 2년물 입찰 (600억달러)	27 (미국) 국채 5년물 입찰 (610억달러)	28 (유로존) ECB 10월 통화정책회의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미국) 국채 7년물 입찰 (620억달러)	29	30
31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미국 재무부, FRB, 언론 참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인텔 Intel (INTC US)

Alder Lake, 반격의 신호탄이 될까?

Bloomberg
최고목표주가

USD 85.00
상승여력: 57.6%

류영호 young.ryu@miraeasset.com

3Q21 Preview

부품공급 이슈 심화로 단기 실적 모멘텀 제한적

- 3Q21 매출액 194억달러(-0.2 QoQ, +5.8% YoY) 전망
- DCG, 전년대비 두 자릿수 성장 기대, 전 사업부분 수요 강세 예상
- CCG, 기판을 포함한 부품 부족 이슈 심화로 전년 대비 역성장 불가피
- 최근 Micron의 가이던스 감안 시 CCG 4분기에도 부진 지속 전망
- 7nm 공정/Alder Lake Pre-PRQ 진행에 따라 GPM 55% (-1.5% YoY) 기대

투자 포인트

Alder Lake와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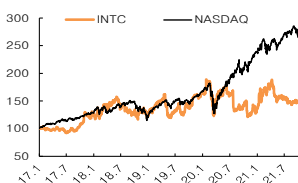
- 신임 CEO 핏겔싱어 이전, 밥스완 부터 준비된 새로운 시작
- 오는 4분기 차세대 아키텍처 Alder Lake 기반의 12세대 프로세서를 출시 예정
- 현재 모바일 AP에서 사용되는 빅/스몰 코어 구조를 적용하는 x86 프로세서
- 성능 위주의 Performance코어와 절전에 특화된 Efficient코어로 구성
- 각각 상황에 맞게 코어를 사용하는 만큼 시스템 전반의 소비전력 효율 증가
- 1) 이기종 프로세서 xPU 전략의 시작 점, 2)전력 효율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
- Alder Lake부터 시작되는 Royal Core Project를 통한 기술력 회복 기대

Valuation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

- 인텔의 IDM 2.0/공정 전환의 성공여부에 대한 시장의 의심은 높음
- 경쟁심화/공급 부족 등 우려도 남아 있는 상황
- 하지만 벨류에이션 부담은 낮고 미국의 반도체 굴기의 중심 기업이라는 점은 매력적
- 4분기 Alder Lake의 성공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

Key data



현재주가 (21/10/05, USD)	53.95	시가총액 (USD)	218.9						
거래소	NASDAQ	시가총액 (조원)	259.6						
EPS 성장률 (21F,x)	-14.6	Bloomberg Rating <table><tr><th>매수</th><th>보유</th><th>매도</th></tr><tr><td>43%</td><td>35%</td><td>22%</td></tr></table>		매수	보유	매도	43%	35%	22%
매수	보유			매도					
43%	35%			22%					
P/E (21F,x)	11.3								
MKT P/E (21F,x)	21.4								
배당수익률 (%)	2.58								

Share performance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8	-18.9	4.4
상대주가	5.2	-23.9	-18.1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결산기 (12월)	12/18	12/19	12/20	12/21F	12/22F	12/23F
매출액 (십억USD)	70.8	72.0	77.9	74.0	74.1	76.5
영업이익 (십억USD)	23.3	22.0	23.7	21.1	20.4	20.9
영업이익률 (%)	32.91	30.62	30.41	28.46	27.50	27.29
순이익 (십억USD)	21.05	21.05	20.90	16.68	17.01	17.30
EPS (USD)	4.6	4.8	5.0	4.3	4.2	4.2
ROE (%)	29.1	27.6	26.3	23.7	22.0	21.7
P/E (배)	10.6	13.7	10.2	11.3	12.2	11.6
P/B (배)	2.8	3.3	2.4	2.4	2.2	2.0

주: G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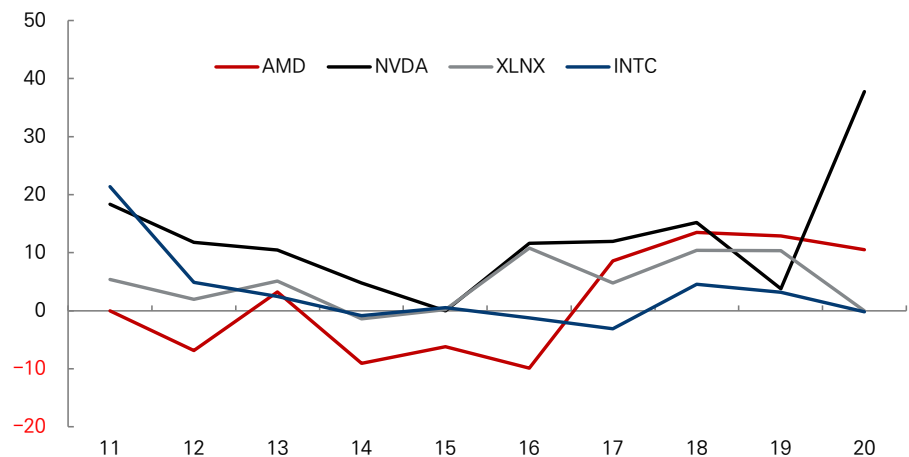
자료: 인텔,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13년부터 시작된 긴 터널

CPU 부분에서 절대 강자였던 인텔이 부진해진 이유는 미세화 공정의 난이도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주요 사업보다 신사업에 더 많이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6번째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취임한 당시 유일한 경쟁자인 AMD는 시장의 복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사실상 반부도 상태였다. 인텔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AMD의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드론, 모바일, 자율주행,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당시 FPGA업체인 알테라와 자율주행 관련업체인 모빌아이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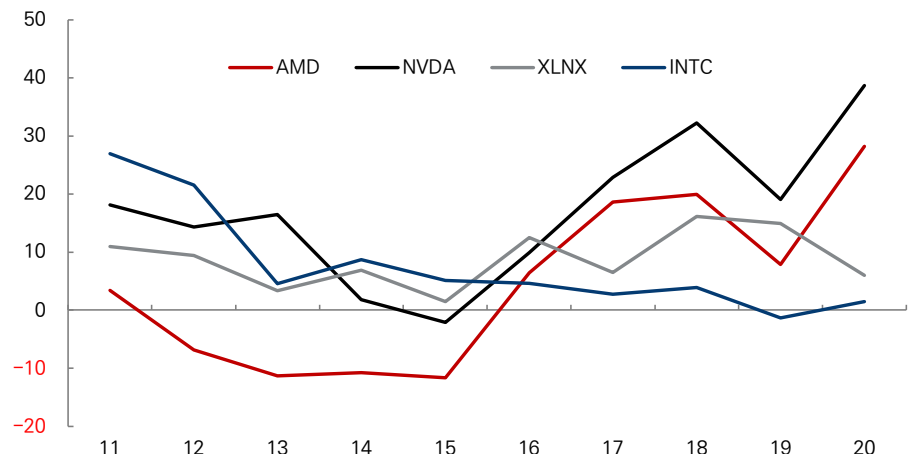
정작 주력 사업인 마이크로 아키텍처 부분은 R&D 인력을 축소 하였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과 R&D 등을 단일 사업부로 통합하기도 하였다. 2015~2017년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고 2016년에는 전체 인원의 약 10%를 해고 하였다. 당시 상당수의 R&D 인력들이 경쟁사 AMD 및 파운드리 업체들로 이동하였다. 크르자니크 부임 이후는 R&D 지출도 감소 하였다. 2017년 출시된 AMD의 Ryzen 1세대 제품 성능이 기대 이상을 기록하며 인텔은 코어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며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방어 하였지만 연속되는 보안이슈, 공정전환 지연 등으로 AMD와의 경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Employee YoY 증감률 추이



주: 인텔 2016년 12월말 알테라 인수, 엔비디아 2020년 멜라독스 인수완료
자료: 각 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R&D 지출 YoY 증감률 추이



자료: 각 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ntel도 2019년부터 변화를 준비

6번째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해임된 후 임시 CEO직을 거쳐 CFO출신 밥스완이 7번째 CEO로 임명되었다. 과거 5명의 CEO가 엔지니어 출신인 것을 감안한다면 밥스완의 역할은 회사의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밥스완은 먼저 그 동안 통합되었던 공정 부분과 마이크로 아키텍처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모뎀 사업은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퀄컴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날 사업중단을 선언하였다.

기술적인 부분은 라자 코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타 엔지니어를 대거로 영입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MD가 인텔과 견줄 수 있는 Athlon 64와 Zen 아키텍처를 담당한 짐 켈러를 영입한 것이다. 최근에는 보안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Xbox One, Xbox One X, 차기 Xbox용 칩을 디자인한 존셀을 영입했으며 애플의 베테랑 엔지니어인 마니샤 판디아도 영입했다.

하지만 시장은 밥스완이 임기기간동안 AMD에게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빼앗기며 부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결국 밥스완은 2021년 2월 팻 겔싱어 취임으로 역대 CEO중 가장 짧은 25개월의 임기를 마치며 교체되었다. 시장에서는 문책성 CEO 교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밥스완의 역할은 과거 인텔로 회귀를 위한 밑 작업이었다고 판단되며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새로 부임한 팻 겔싱어는 폴 오텔리를 이은 인텔의 6대 CEO 후보자였다. 하지만 셸 말로니가 유력 후보로 선임되며 인텔을 떠나게 되었다. 팻겔싱어는 크르자니크 이후 CEO 후보에도 거론되기도 했으나 당시 인텔로 돌아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텔은 팻겔싱어를 선임하기위해 밥스완을 통해 선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밥스완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한 만큼 마지막으로 참석한 인텔의 실적 발표이후 150만달러 규모의 인텔 주식을 매입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팻 겔싱어, 그리고 Royal Core Project

팻 겔싱어 복귀 이후 글렌 힌튼, 실로미트 바이스와 같은 전설적인 엔지니어들도 인텔에 같이 복귀하며 기술의 인텔로 복귀 하려고 한다. 특히 12세대 Alder Lake 부터 시작되는 프로젝트들은 일명 Royal Core project는 12세대부터 17세대까지 최근 실시한 아키텍처에서 소개된 공정과 기술들을 적용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17세대 제품은 12세대 대비 2배의 IPC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성공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지만 Alder Lake부터 시작되는 인텔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 1세대 Core 아키텍처 수석 설계자 글렌 힌튼



자료: 언론보도

그림 4. 샌디브릿지/스카이레이크 총 책임 실로미트 바이스



자료: Intel

표 1. 밥 스완이후 주요 엔지니어 영입

이름	영입 시기	인텔 경력	연혁	향후 인텔에서의 역할
라자코두리	17년 11월	X	-前 AMD 수석 부사장이자 수석 설계자 -AMD에서 14nm공정을 처음 도입한 풀라리스 아키텍처와 차세대 베가 아키텍처 기반 GPU 개발을 주도, 이를 기반으로 APU, GPU컴퓨팅 부문을 지휘 -애플에서 그래픽 아키텍처 부문 이사로 근무하며 레티나 디스플레이로의 전환 주도	-비주얼 컴퓨팅 및 가속 컴퓨팅 부문의 수석 부사장 겸 설계자 -차세대 인공지능 비주얼 컴퓨팅 분야와 통합 그래픽 솔루션, 컴퓨팅 가속 솔루션 등의 개발 지휘 -향후 본격적으로 고성능 GPU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영입 :인텔은 2020년 노트북과 보급형 PC용 GPU 'Iris Xe MAX, DG1' 첫 출시 :21년 8월 '아크(ARC)'라는 GPU 브랜드 소개. 1Q22부터 DG2(알케미스트)로 데스크톱PC용 고성능 GPU시장 진출 계획
짐 켈러	18년4월~20년 6월	X	-현재 PC및 서버 시장에서 보편화된 x86용 64비트 아키텍처와 AMD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애슬론 64' 프로세서, K7, K8 마이크로 아키텍처 개발 -SiByte에서 고속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 -이후 애플(2004~2012)에서 A4, A5등 ARM7기반의 모바일 AP 개발 지휘, 애플 자체 개발 프로세서 시리즈의 초석을 다짐 -12년에 AMD로 복귀한 후 AMD의 부활을 이끈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와 라이젠 프로세서 및 젠플러스 K12(스카이브릿지) 개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재직, 기존의 엔비디아 제품보다 고성능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인텔 이후 머신러닝 가속용 칩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캐나다 스타트업 '텐스토렌트(Tenstorrent)'에서 CTO로 근무 중 : 기존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머신러닝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시도인 '소프트웨어 2.0'을 위한 하드웨어 솔루션 지휘	-기술 및 시스템 아키텍처 및 클라이언트 부문(TSCG) 수석 부사장으로 근무, 짐 켈러가 떠나면서 인텔은 TSCG를 해체하며 조직 개편 -칩 설계 부문의 핵심인 실리콘 엔지니어링 부문 총괄 매니저로 재직하며 차세대 프로세서 '오션 코브(Ocean Cove)' 개발을 주도, 난항을 겪고 있던 10nm 공정 조율 -사임 이후 6개월 간 고문으로 활동
마수마 바이올라	19년 12월	X	-DEC에서 ASIC 디자인 및 검증 엔지니어로 근무 -前 AMD의 세미커스텀 SoC의 부사장, 디자인 엔지니어링 수석 이사 및 부사장으로 15년 근무 : AMD의 APU및 CPU클라이언트 칩 로드맵 계획	-그래픽 및 SoC의 수석 부사장
게리 패튼	19년 12월	X	-前 글로벌파운드리 CTO, IBM Microelectronics 비즈니스 책임자 -IBM에서 차세대 반도체 프로세스 기술 연구 및 개발 담당 -글로벌파운드리 IBM인수 후 글로벌 파운드리로 합류 -글로벌 파운드리 재직 당시 향후 공정 기술과 관련된 R&D 및 전략 결정	-공정 기술, 수율, 성능 등 설계 지원 담당 -디자인 지원 담당 부사장 겸 총 책임자
알리 이브라힘	20년 5월	X	-AMD에서 클라우드 게임/콘솔 SoC 비즈니스 수석 연구원로서 13년 근무 -클라이언트 APU부문 수석 설계자(Skybridge 프로젝트 참여, x86 SoC)	-하이엔드 GPU 구축 관련 업무
글렌 힌튼	21년 1월	1983~2017 34년	-P6 프로세서를 설계(P6아키텍처는 인텔 포트폴리오의 최전선에 있는 핵심 아키텍처) -Nehalem CPU 코어의 수석 아키텍트를 맡았던 前 수석 연구원 -펜티엄 4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개발의 주역 -세계 최초의 Super Scalable 마이크로프로세서인 인텔 i960 CA의 수석 개발자 -8개의 CPU설계에서 90개 이상의 특허 보유	-고성능 CPU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
수닐 세노이	21년 1월	2006~2014, 8년	-인텔에서 엔터프라이즈 마이크로프로세서 부문 GM및 부사장으로 근무 -인텔이 서버 플랫폼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한 'Nehalem'이라는 서버 및 클라이언트 제품군의 개발 주도 -인텔에서 VPG(Visual and Parallel Computing Group)부문 부사장으로 근무, 제온 파이(Xeon Phi) 설계 -인텔에서 플랫폼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SoC 설계 및 개발 담당 -2014년에 인텔을 떠나 오픈소스 RISC 프로세서 플랫폼인 RISC-V에서 근무	-디자인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 -서버 등 데이터센터용을 위한 프로세서(제온 등) 설계 담당 전망
귀도 아펜젤러	21년 1월	X	-Yobico에서 chief product officer로 근무 -VMWare에서 클라우드&네트워킹 관련 Technology officer로 근무 -Big Switch Networks 공동 창립자 및 CEO	-데이터 플랫폼 부문 CTO, 제온 프로세서와 옵테인 메모리, FPGA 등을 담당
산제이 나타란	21년 3월	O	-2017년부터 인텔 공급 업체 Applied Materials의 부사장으로 근무 -22년 경력	-Hillsboro에 있는 로직 개발 부문의 부사장
하오 홍	21년 6월	X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13년 근무: 북미 파운드리 사업 담당	-21년 3월 발표한 인텔의 IDM 2.0전략에 따른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에 따른 영입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담당 부사장 -IFS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파운드리 수익, 고객 기반 확대 담당

스튜어트 판	21년 6월	1981~2014 33년간	-Business management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마이크로프로세서 가격 책정 및 공급 전략 담당 : 그가 핵심 인력으로 근무하던 2000~2014년 시기, 인텔 총매출이 2000년 330억 달러에서 2014년 550억 달러로 증가) -이후 hp에서 수석 공급망 관리자로 근무	-인텔 전략 부문 수석 부사장
밥 브레넌	21년 6월	1991~2013 22년간	-펜티엄 성능 시뮬레이션 및 펜티엄4 공식 품질 검증 관리자로 근무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 랩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 -모바일 플랫폼 하드웨어 아키텍처 설계 (디스플레이, 비디오 최적화, 전원 관리 등) -인텔이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도전 당시 주된 Enterprise SoC 설계자로 스토리지 및 커뮤니케이션 SoC 제품용 아키텍처 지휘 -이후 삼성에서 시스템 시장 및 메모리/플래시 기반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 수행 -마이크론에서 메모리 및 시스템 부사장으로 근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의 커스텀 디자인 부문 부사장
닉 맥킨	21년 6월	X	-Abrizio의 CTO 및 공동창업자 -Nemo의 CEO 및 공동창업자 -Nicira의 공동창업자 -Barefoot Networks의 수석 연구원 -stanford 교수 -인터넷 스위치 및 라우터 설계의 리더로 여겨지는 인물로 25개의 수상기록	-네트워크 및 엣지 부문 상무
그렉 라벤더	21년 6월	X	-Network Identity, Messaging, Portal Software를 영위하는 Sun Microsystem의 인터넷 디렉토리 부문 senior director로 근무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관련 업무 수행 -Cisco Systems에서 네트워크 운영 체계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 -CITI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R&D를 지휘하는 Managing Director -VMWare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 부문 CTO 및 상무로 근무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기술 부문의 CTO 및 상무
실로미트 바이스	21년 7월	1989~2017 28년간	'-2세대 코어 프로세서(개발명 샌디브리지)와 6세대 코어 프로세서(개발명 스카이레이크) 개발 주역 - 2세대 코어 프로세서(샌디브리지) 32nm공정에서 개발. 인텔의 '빌트인 비주얼(거의 모든 프로세서에 그래픽칩셋을 탑재 목표) 전략 적용된 첫 제품 같은 시기 출시된 AMD의 FX프로세서 대비 전력소모와 성능 면에서 완승 - 6세대 코어 프로세서(스카이레이크) 14nm공정에서 개발. 3년 뒤 출시 예정이던 10nm 공정 기반 아키텍처가 계속 지연되면서 5년 가까이 현역 (노트북은 2019년 출시된 10세대 칩(아이스레이크)부터, 데스크톱PC는 21년 상반기 출시된 11세대 칩(로켓레이크)부터 스카이레이크를 벗어남. 서버용 칩은 21년 상반기 출시된 3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서 스카이레이크를 벗어남) -2017년 인텔을 떠나 멜라노스(2019년 엔비디아 피인수)에서 통신 칩 개발하다 4년만에 인텔로 복귀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룹 수석 부사장 -향후 인텔에서 소비자용 프로세서(데스크톱 PC와 노트북 등)에 탑재될 프로세서 설계 담당 -근무지는 최신 아키텍처를 프로세서 신제품에 선행 적용한 이스라엘 소재 하이파 연구소: 21년 4분기 이후 출시될 차세대 프로세서 '엘더레이크'의 기반 아키텍처인 '골든 코브'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 (*하이파 연구소는 과거 인텔 전략인 틱톡에서 '틱'에 해당하는 프로세서 담당.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한 프로세서를 하이파 연구소가 개발하면 미국 오레곤 주 등의 연구소에서는 여기에 보다 개선된 공정을 적용.
안톤 카플라얀	21년 8월	X	-엔비디아에서 튜링 및 암페어 아키텍처의 레이 트레이싱과 DLSS개발을 지휘 경험 -페이스북에서 그래픽에 대한 머신 러닝과 이미지 재구성, 가상 현실을 위한 렌더링 과제 수행	-인텔 AXG의 그래픽 연구 부사장으로 영입 :인텔 Xe 아키텍처 그래픽 기반 인공 지능 슈퍼샘플링에 기여 전망

자료: 언론보도, LinkedI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lder L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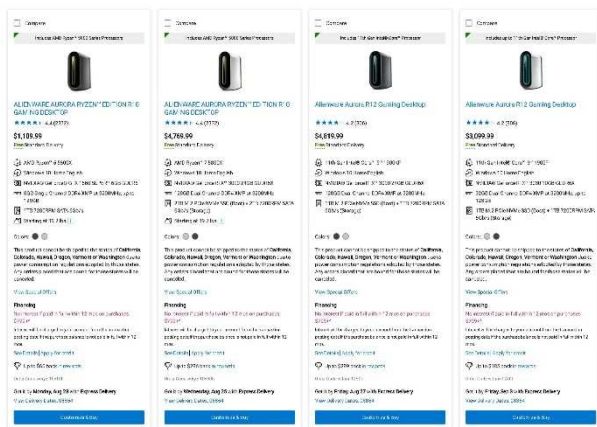
인텔은 오는 4분기 차세대 아키텍처 Alder Lake 기반의 12세대 프로세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인텔의 12세대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과 다른 구성과 작동 방식때문이다. Alder Lake는 현재 모바일 AP에서 사용되는 빅/스몰 코어 구조를 적용하는 x86 프로세서이다. 성능 위주의 Performance코어(코어당 2쓰레드)와 절전에 특화된 Efficient코어(코어당 1쓰레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상황에 맞게 코어를 사용하는 만큼 시스템 전반의 소비전력 대비 효율 높일 수 있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전력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빅/스몰 코어 구성이 당연하다. 반면 데스크톱의 경우 전원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전력 효율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코어수가 늘어난 만큼 성능은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전력 대비 효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최근 데스크탑 PC에서도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이나 게이밍 PC가 대중화 되면서 환경문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데스크톱 PC도 소비전력이 새로운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포함 6개 주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력소비 규제를 넘어서는 고성능/저효율 PC 판매가 중단되었다. 현재는 한정적인 모델(Dell의 대표적인 게이밍 브랜드 에이리언웨어 PC의 일부 모델)만 판매 중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PC 업체들은 전력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Alder Lake의 성능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인텔은 P코어의 경우 11세대 대비 성능이 19%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유출된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경쟁사 AMD의 Ryzen 5950X 보다도 약 20%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실제 제품이 출시 되어 정확한 성능이 측정 되겠지만 예상보다 긍정적인 성능 개선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초기 문제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스케줄러이다. 엘더레이크는 서로 다른 코어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연산 작업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스케줄러가 필요하다. 인텔은 Thread Director를 도입하고 윈도우 11도 이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초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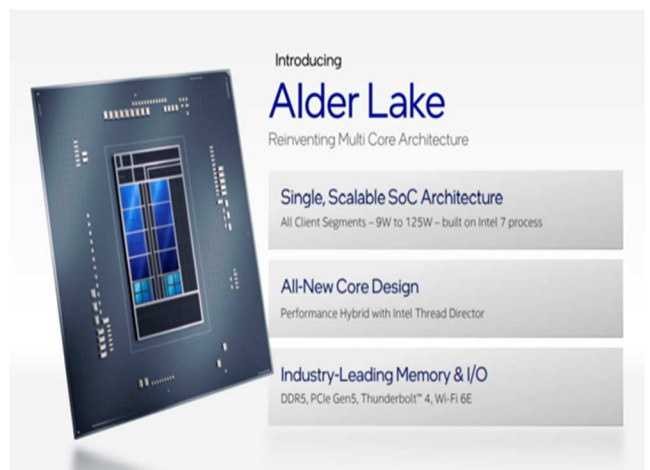
Alder Lake는 하이브리드 구조 외에도 DDR5/PCI 5.0 등이 도입되는 만큼 시장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인텔 입장에서 Alder Lake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 신제품으로서 AMD 대비 좋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텔은 서로 다른 프로세서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자사가 가진 다양한 프로세서들을 조합하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첫 단추가 바로 Alder Lake이다. Alder Lake의 성공 여부는 인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일부 에이일리언 웨어 PC, 6개주 판매 금지



자료: Dell, 언론보도

그림 6. 인텔의 Alder Lake



자료: Intel

표 2. 인텔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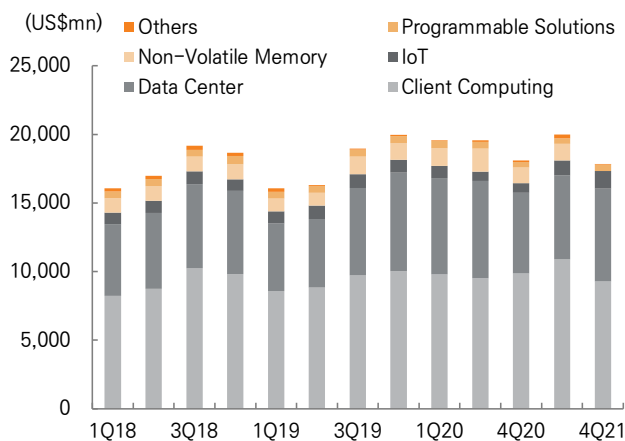
(US\$mn, %, US\$)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	3Q21F	4Q21F	2019	2020	2021F
Total Revenue	19,828	19,728	18,333	19,978	19,673	19,631	19,396	19,468	72,174	72,547	71,798
Client Computing Group	9,800	9,496	9,847	10,900	9,585	9,431	8,729	8,609	37,146	40,043	36,355
Data Center Group	7,011	7,117	5,905	6,100	5,618	6,508	6,984	7,185	23,481	26,133	26,295
Internet of Things	1,137	816	911	1,110	1,291	1,311	1,281	1,248	4,700	3,974	5,131
Non-Volatile Memory Group	1,300	1,659	1,153	1,208	1,100	1,100	1,008	1,008	4,362	5,320	1,100
Programmable Solutions Group	519	501	411	422	486	486	471	490	1,987	1,853	1,934
Others	61	139	106	238	593	125	130	135	498	544	983
QoQ Growth											
Total Revenue	-1.9	-0.5	-7.1	9.0	-1.5	-0.2	-1.2	0.4			
Client Computing Group	-2.1	-3.1	3.7	10.7	-12.1	-1.6	-7.4	-1.4			
Data Center Group	-2.8	1.5	-17.0	3.3	-7.9	15.8	7.3	2.9			
Internet of Things	-2.0	-28.2	11.6	21.8	16.3	1.5	-2.3	-2.6			
Non-Volatile Memory Group	6.8	27.6	-30.5	4.8	-8.9	0.0	-8.4	0.0			
Programmable Solutions Group	2.8	-3.5	-18.0	2.7	15.2	0.0	-3.0	4.0			
Others	-41.3	127.9	-23.7	124.5	149.2	-78.9	4.0	4.0			
YoY Growth											
Total Revenue	23.5	19.5	-4.5	-1.1	-0.8	-0.5	5.8	-2.6	0.6	0.5	-1.0
Client Computing Group	14.1	7.4	1.4	8.9	-2.2	-0.7	-11.4	-21.0	0.4	7.8	-9.2
Data Center Group	43.0	42.8	-7.5	-15.4	-19.9	-8.6	18.3	17.8	2.1	11.3	0.6
Internet of Things	1.6	-31.3	-26.2	-4.3	13.5	60.7	40.7	12.4	10.6	-15.4	29.1
Non-Volatile Memory Group	42.1	76.5	-10.6	-0.7	-15.4	-33.7	-12.6	-16.6	1.3	22.0	-79.3
Programmable Solutions Group	6.8	2.5	-19.0	-16.4	-6.4	-3.0	14.7	16.2	-6.4	-6.8	4.4
Others	-76.7	113.8	58.3	128.8	872.1	-10.1	22.6	-43.2	-48.6	9.2	80.7
Gross Profit	12,016	10,507	9,741	11,348	10,854	11,206	10,668	10,707	42,140	43,612	43,435
Gross margin	60.6	53.3	53.1	56.8	55.2	57.1	55.0	55.0	58.4	60.1	60.5
Operating Income (loss)	7,038	5,697	5,059	5,884	3,694	5,546	5,327	5,398	22,035	23,678	19,965
Operating Margin	35.5	28.9	27.6	29.5	18.8	28.3	27.5	27.7	30.5	32.6	27.8
Pretax Income	6,614	5,935	5,041	7,488	3,906	5,745	5,423	5,494	24,058	25,078	20,568
Net Income	5,661	5,105	4,276	5,857	3,361	5,061	4,722	4,812	21,048	20,899	17,956
EPS	\$1.33	\$1.20	\$1.02	\$1.42	\$0.82	\$1.24	\$1.16	\$1.19	\$4.74	4.98	4.44

주: GAAP, NSG 실적 제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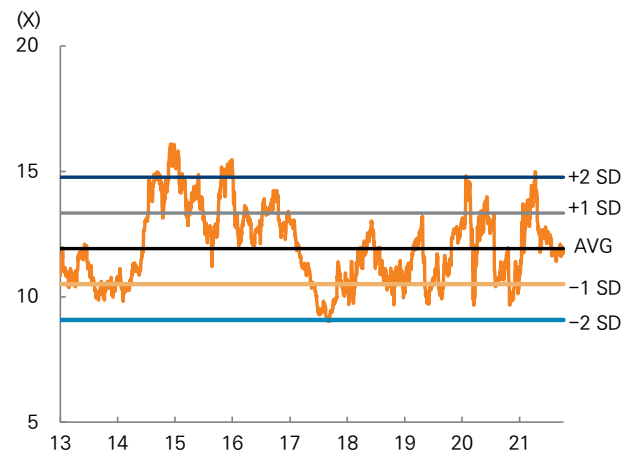
자료: Inte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7. 인텔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Inte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8. 인텔 std P/E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체별 매매 동향

2021. 10. 7(목)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외국인 (업종)					
기관전체 (당일 834.4 / 5일 -13330.4)			외국인전체 (당일 -2769.2 / 5일 -15453.0)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금융업	839.9	713.4	의약품	-557.1	-4,106.2	의약품	1,065.9	-1,662.4	전기전자	-1,745.8	-12,370.4
보험업	518.4	847.5	전기전자	-297.9	-9,351.1	통신업	85.0	562.1	운수장비	-498.0	-1,836.5
서비스업	461.9	538.9	기계	-82.5	-213.8	보험업	53.0	-21.4	운수창고업	-367.9	-361.9
유통업	177.6	249.5	건설업	-55.1	70.8	비금속광물	50.1	-63.9	화학	-254.6	3,145.0
운수장비	116.6	-2,008.3	전기가스업	-28.2	86.5	전기가스업	23.3	430.1	유통업	-238.7	-758.2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삼성SDI	233.3	-834.7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514.8	-960.6	셀트리온	446.9	-819.0	삼성전자	-773.3	-7,375.0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07.8	1,084.0	KODEX 레버리지	-406.0	-2,375.0	카카오	392.9	-1,159.2	대한항공	-378.5	76.4
KODEX 200선물인버스2X	203.3	2,190.5	SK바이오사이언스	-257.1	-941.7	SK바이오사이언스	353.7	-457.4	후성	-323.5	-280.0
KODEX 인버스	179.6	494.6	삼성전자	-251.0	-6,055.0	HMM	288.0	113.5	삼성전자우	-320.7	-2,649.7
카카오	158.5	-495.9	LG전자	-214.2	-1,047.6	SK하이닉스	243.5	-537.0	기아	-318.2	-597.9
SK이노베이션	147.6	1,218.6	KODEX 200	-163.9	3.4	LG화학	216.5	225.6	삼성SDI	-308.6	-615.8
NAVER	143.0	-1,376.8	SKC	-160.7	-1,253.1	OCI	143.5	251.7	삼성엔지니어링	-200.8	-272.9
현대해상	124.8	269.2	SK하이닉스	-146.0	-1,319.1	신한지주	113.4	594.0	LG전자	-179.2	-209.8
롯데케미칼	117.5	-76.6	셀트리온	-141.5	-1,596.5	코오롱인더	104.6	67.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7.1	-43.0
일진머티리얼즈	116.6	610.0	TIGER 2차전지테마	-118.5	-148.1	KODEX 200선물인버스2X	102.5	-196.9	크래프톤	-157.4	-525.3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외국인 (업종)					
기관전체 (당일 1353.0 / 5일 -2188.5)			외국인전체 (당일 -538.2 / 5일 -1699.0)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오락문화	213.3	1,409.2	유통	-49.2	-768.4	제약	413.9	-36.2	IT부품	-653.6	-328.8
반도체	187.4	-911.3	통신장비	-4.1	-33.8	운송장비,부품	242.4	120.9	반도체	-354.9	-633.9
통신방송	171.5	5.8	음식료,담배	-2.2	-603.0	기타서비스	157.3	108.0	디지털컨텐츠	-291.9	73.1
방송서비스	170.2	13.2	건설	-0.7	-40.4	유통	102.8	-277.4	화학	-102.0	-372.9
디지털컨텐츠	160.9	663.3	기타제조	0.1	-3.1	컴퓨터서비스	37.6	-34.8	오락,문화	-72.7	185.2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CJ ENM	169.4	12.9	셀트리온헬스케어	-66.1	-348.2	에이치엘비	267.5	250.4	대주전자재료	-258.4	40.4
에코프로비엠	108.1	-18.7	엘앤에프	-51.8	-228.1	바이오니아	118.3	104.2	엘앤에프	-146.4	-158.2
펄어비스	71.1	391.6	HK이노엔	-36.1	-50.7	에이치엘비생명과학	116.2	9.3	펄어비스	-125.5	-254.5
동화기업	70.3	149.7	텍스터	-24.0	-16.4	아난티	110.3	111.2	KH바텍	-122.9	119.1
에코프로	69.0	22.9	유니셈	-23.1	-17.1	셀트리온헬스케어	100.1	-108.1	동진썬미켐	-103.9	-58.6
스튜디오드래곤	66.5	216.6	셀트리온제약	-21.7	-104.7	씨젠	82.5	-32.4	한국비엔씨	-94.8	41.5
에스엠	65.3	592.2	덕산네오룩스	-19.4	-279.7	셀트리온제약	73.9	42.4	위메이드	-78.0	84.5
천보	63.8	99.7	현대무백스	-18.5	-33.1	삼천당제약	58.8	-41.0	천보	-64.4	-194.3
동진썬미켐	63.6	-117.4	프레스티자바이오로직스	-17.5	-96.2	바이오리더스	45.5	7.1	에스앤에스텍	-62.6	-24.0
JYP Ent.	52.7	325.9	바이오니아	-16.1	7.1	제넥신	43.3	85.0	에코프로	-58.9	-93.6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 ETF 거래는 LP 거래량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등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7,486.9	KODEX 코스닥 150	-16,298.8	삼성SDI	19,803.6	삼성전자	-43,185.4		
롯데케미칼	5,937.8	효성첨단소재	-5,551.6	현대해상	7,792.1	셀트리온	-21,851.9		
NAVER	5,797.1	SKC	-5,541.0	크래프톤	7,450.8	SK하이닉스	-14,404.2		
SK	4,841.3	코오롱인더	-5,033.2	SK이노베이션	7,317.4	SK바이오사이언스	-12,194.2		
삼성생명	4,507.1	SK케미칼	-4,412.4	카카오	7,257.7	LG전자	-9,518.1		
SK이노베이션	4,375.5	크래프톤	-4,304.2	현대차	7,180.7	삼성바이오로직스	-8,309.9		
카카오	4,042.3	셀트리온	-3,748.2	현대중공업	7,115.2	SKC	-8,046.7		
SGC에너지	3,062.8	KODEX 200선물인버스2X	-3,495.9	KODEX 200	6,681.7	한국전력	-6,133.9		
코스맥스	2,814.0	SK바이오사이언스	-2,942.2	대한항공	5,922.1	NAVER	-5,111.6		
솔루스첨단소재	2,790.8	TIGER 코스닥150	-2,629.8	삼성화재	5,759.8	SK아이이테크놀로지	-5,044.0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2차전자산업	41,974.6	제이알글로벌리츠	-1,623.2	TIGER 미국S&P500	9,566.2	TIGER 200	-39,200.1		
TIGER 2차전자테마	21,056.6	기아	-1,477.2	KINDEX 미국S&P500	6,034.9	KODEX 은행	-4,802.8		
TIGER 200	2,997.9	KODEX 코스닥 150	-1,443.7	ARIRANG 고배당주	4,954.5	KO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2,773.9		
TIGER KRX2차전자K-뉴딜	2,561.1	ARIRANG 고배당주	-1,239.8	KODEX 배당가치	3,924.3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2,720.0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2,006.9	SKC	-566.8	TIGER 코스피	3,775.1	기아	-2,676.9		
KODEX 200	1,735.3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529.1	KODEX 코스피	2,117.7	SK바이오사이언스	-2,166.3		
KODEX 레버리지	1,419.7	KODEX WTI원유선물(H)	-507.8	GS	2,015.0	KODEX 인버스	-2,090.7		
KBSTAR 200	998.9	한국가스공사	-501.9	호텔신라	1,843.8	녹십자	-1,852.2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614.3	KBSTAR 게임테마	-470.6	KBSTAR 수출주	1,707.6	LG전자	-1,802.3		
후성	597.2	포스코케미칼	-450.2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	1,544.5	삼성전자	-1,729.7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카카오	39,294.3	15,846.7	삼성전자	-77,333.0	-25,104.4		
KODEX 200선물인버스2X	10,253.8	20,332.7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4,583.2	-51,480.6		
LG화학	21,650.9	8,689.9	KODEX 레버리지	-7,431.1	-40,602.4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3,603.6	20,783.7	LG전자	-17,917.6	-21,423.5		
NAVER	7,158.2	14,303.7	기아	-31,816.0	-7,495.9		
현대차	9,110.0	9,823.7	후성	-32,348.9	-2,266.3		
현대해상	6,448.1	12,479.3	SKC	-15,477.1	-16,072.2		
롯데케미칼	3,351.3	11,75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707.6	-1,036.4		
삼성생명	2,019.3	11,409.2	삼성전기	-8,262.2	-8,105.8		
한화솔루션	8,582.7	4,541.7	한전기술	-13,114.2	-763.3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등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동화기업	2,930.0	셀트리온헬스케어	-3,264.7	동진씨미캡	8,268.9	셀트리온헬스케어	-9,423.3
펄어비스	2,740.3	덱스터	-2,288.8	CJ ENM	8,177.1	위메이드	-4,300.0
CJ ENM	2,718.0	에스티팜	-1,959.7	스튜디오드래곤	2,976.4	엘앤에프	-3,316.0
JYP Ent.	2,005.6	에스엠	-1,539.3	동화기업	2,082.5	셀트리온제약	-2,799.1
삼강엠앤티	1,937.2	세원	-1,401.6	NHN한국사이버결제	1,574.1	대주전자재료	-2,547.2
에이스토리	1,619.6	파라다이스	-1,316.9	천보	1,485.3	에코프로비엠	-1,942.0
스튜디오드래곤	1,449.0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1,209.9	에스티팜	1,475.8	바이오니아	-1,687.5
동진씨미캡	1,404.9	유니셀	-1,104.5	휴메덱스	1,288.7	에이스테크	-1,677.4
아프리카TV	1,230.1	우리산업	-1,049.4	유진테크	1,166.3	씨젠	-1,455.6
디스플레이텍	1,132.9	에코프로비엠	-916.2	펄어비스	792.3	서울반도체	-1,420.8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동원개발	171.1	셀트리온헬스케어	-258.7	CJ ENM	1,351.2	셀트리온헬스케어	-2,735.8
대원산업	120.8	에스티팜	-192.2	펄어비스	782.3	오스코텍	-634.6
메드팩토	54.2	에스엠	-98.1	천보	758.6	동진씨미캡	-595.3
에코프로비엠	38.6	이오테크닉스	-94.4	에이스토리	643.0	에스엠	-575.2
포인트모바일	31.5	서울옥션	-84.7	하나머티리얼즈	637.8	이엔에프테크놀로지	-514.3
클래시스	24.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3.3	씨젠	627.5	엘앤에프	-492.9
KH바텍	22.2	하이비전시스템	-56.8	스튜디오드래곤	537.6	에코프로비엠	-471.1
제넥신	20.0	마이크로디지털탈	-48.8	조이시티	522.4	삼천당제약	-441.3
현대바이오	15.0	도이치모터스	-33.0	클래시스	369.7	알테오젠	-429.4
광진원텍	13.1	씨젠	-22.1	클마비앤에이치	297.9	덕산네오룩스	-359.0

KOSDAO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에이치엘비	26,748.6	3,448.9	엘앤에프	-14,642.9	-5,181.7		
에이치엘비생명과학	11,619.9	1,121.4	위메이드	-7,796.1	-925.7		
스튜디오드래곤	2,412.7	6,654.8	초록밤미디어	-1,781.1	-558.9		
씨젠	8,247.7	612.9	메드팩토	-1,987.4	-206.5		
에스엠	425.8	6,534.0	네오위즈	-2,019.3	-11.5		
NHN한국사이버결제	2,323.4	3,073.9	서진시스템	-1,222.3	-375.6		
제넥신	4,325.5	1,038.7	세원	-186.1	-1,386.5		
엔지켐생명과학	3,014.8	1,360.2	미코	-1,485.1	-82.9		
아이진	4,117.4	13.9	이오테크닉스	-570.0	-935.5		
네이처셀	3,034.5	1,021.7	우리산업	-340.6	-1,046.0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2021. 10. 7 (목)

한국/아시아

(p, %)

	Price	1D	1W	1M	3M	1Y
KOSPI (10/6)	2,908.31	-1.82	-4.97	-9.21	-10.59	22.93
KOSDAQ (10/6)	922.36	-3.46	-7.90	-12.40	-10.84	6.93
KOSPI200 (10/6)	381.93	-1.57	-4.54	-9.14	-11.72	21.46
일본 NIKKEI225 (10/6)	27,528.87	-1.05	-6.82	-7.18	-2.10	17.48
중국 상해종합 (9/30)	3,568.17	0.90	-2.03	0.68	1.40	10.88
홍콩恒生 (10/6)	23,966.49	-0.57	-2.83	-8.40	-11.74	-0.06
홍콩 HSCFI (10/6)	8,412.72	-1.21	-3.97	-10.23	-14.35	-11.78
대만 TWSE (10/6)	16,393.16	-0.41	-2.74	-6.30	-8.24	29.04
인도 SENSEX (10/6)	59,744.88	0.00	0.56	2.48	13.65	50.97
베트남 VSI (10/6)	1,362.82	0.60	1.76	1.22	-0.86	48.83
인도네시아 JCI (10/6)	6,417.32	2.06	4.13	4.74	6.25	28.37

환율

(각국 통화 단위, %)

	Price	1D	1W	1M	3M	1Y
원/달러 (10/6)	1,192.70	0.33	0.90	3.14	4.18	2.73
달러/유로 (10/6)	1.16	-0.36	-0.36	-2.65	-2.44	-1.52
엔/달러 (10/6)	111.41	-0.04	-0.49	1.41	1.54	5.47
원/엔(100엔) (10/6)	1,068.82	0.35	0.75	1.48	2.30	-2.86
위안/달러 (9/30)	6.44	-0.40	-0.22	-0.25	-0.44	-5.10
달러인덱스 (10/6)	94.27	0.31	-0.08	2.42	2.00	0.62
원/해알 (10/6)	217.05	0.00	-0.56	-2.99	-0.28	4.23
해알/달러 (10/6)	5.49	0.32	1.46	6.25	4.44	-1.80

국내금리/채권

(%, bp)

	Price	1D	1W	1M	3M	1Y
한국 기준금리 (10/6)	0.75	0.00	0.00	0.00	25.00	25.00
CD(91일) (10/6)	1.05	1.00	1.00	13.00	36.00	42.00
LIBOR(3개월) (10/5)	0.12	-0.26	-0.75	0.85	0.01	-9.63
국고3년 (10/6)	1.72	6.90	11.60	26.00	36.10	81.40
국고10년 (10/6)	2.40	10.80	17.60	42.90	39.70	86.80
회사채3년(AA-) (10/6)	2.17	7.00	11.40	29.00	30.60	-7.10

해외 채권

(%, bp, 하이일드/리츠지수 변화율: %)

	Price	1D	1W	1M	3M	1Y
미국채 2년 (10/6)	0.30	0.90	0.80	8.80	9.90	15.00
미국채 10년 (10/6)	1.53	-0.60	0.40	20.00	22.60	78.40
독일국채 10년 (10/6)	-0.18	0.60	3.10	18.50	12.50	32.50
일본국채 10년 (10/6)	0.08	2.40	0.60	3.30	5.80	4.50
인도국채 10년 (10/6)	6.28	1.80	7.10	10.60	15.30	25.20
중국국채 10년 (9/30)	2.88	1.20	1.70	2.90	-20.50	-27.10
브라질국채 10년 (10/6)	11.04	-10.30	-3.60	20.40	172.50	325.10
미국하이일드채권지수(p) (10/5)	2,441.91	-0.03	-0.08	-0.29	0.33	10.57
FTSE글로벌리츠지수(p) (10/6)	3,428.60	0.61	-0.17	-6.12	-0.64	30.51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유럽

(p, %)

	Price	1D	1W	1M	3M	1Y
미국 DowJones (10/6)	34,416.99	0.30	0.08	-2.69	-0.01	23.92
미국 S&P500 (10/6)	4,363.55	0.41	0.09	-3.79	0.99	29.83
미국 NASDAQ (10/6)	14,501.91	0.47	-0.07	-5.61	-0.40	30.01
유로 STOXX50 (10/6)	4,012.65	-1.30	-1.66	-5.50	0.53	24.10
독일 DAX30 (10/6)	14,973.33	-1.46	-2.55	-6.02	-2.90	16.02
영국 FTSE100 (10/6)	6,995.87	-1.15	-1.58	-2.66	-0.49	17.58
브라질 보베스파 (10/6)	110,559.60	0.09	-0.49	-6.20	-11.85	15.63
러시아 RTS(\$) (10/6)	1,814.64	-1.38	3.31	4.47	11.49	55.29
필라델피아반도체 (10/6)	3,238.79	0.36	-0.77	-5.60	0.50	41.98
나스닥헬스케어 (10/6)	1,190.00	-0.93	-3.80	-11.14	-6.10	12.08
VIX (10/6)	21.00	-1.41	-6.91	27.97	10.53	-28.77

에너지

(US\$, %)

	Price	1D	1W	1M	3M	1Y
원유 WTI (10/6)	77.43	-1.90	3.47	11.75	6.16	90.39
원유 Brent (10/6)	81.08	-1.79	3.10	12.27	9.39	90.11
원유 Dubai (10/6)	80.25	0.97	6.76	15.14	12.62	101.94
휘발유 NYMEX (10/6)	230.82	-2.11	3.54	7.16	2.35	86.88
천연가스 NYMEX (10/6)	5.68	-10.09	3.62	20.44	53.88	125.20
석탄 ICE (10/6)	237.10	-13.62	13.72	41.13	88.92	310.92
플라실리콘 (10/6)	33.74	3.43	3.43	20.50	23.36	217.11
태양광 모듈 (10/6)	0.20	0.00	0.00	4.08	2.51	20.00

금속

(US\$, %)

	Price	1D	1W	1M	3M	1Y
철광석 DCE(위안) (9/30)	715.00	6.40	5.15	-23.41	-46.88	-25.56
중국 열연(위안) (9/29)	5,801.00	0.40	-0.03	2.40	6.81	50.56
구리 LME (10/5)	9,090.00	-1.94	-1.84	-3.01	-4.14	39.43
알루미늄 LME (10/5)	2,912.00	0.07	-0.14	7.71	15.19	64.24
금 COMEX (10/6)	1,760.50	0.05	2.27	-3.88	-2.21	-7.40
은 COMEX (10/6)	22.53	-0.34	4.87	-9.01	-13.23	-5.81

농산물/운송/반도체

(US\$, %)

	Price	1D	1W	1M	3M	1Y
옥수수 CBOT (10/6)	532.25	-0.98	-1.25	4.77	-16.58	38.25
소맥 CBOT (10/6)	746.00	0.17	5.03	4.41	21.85	25.85
대두 CBOT (10/6)	1,242.00	-0.68	-3.25	-3.20	-10.66	18.97
설탕 ICE (10/6)	19.77	-0.40	4.38	0.76	13.30	42.44
천연 고무 TOCOM(엔) (10/6)	197.10	1.44	1.65	1.08	-9.21	-11.14
BDI (p) (10/5)	5,409.00	2.70	9.01	37.15	66.89	161.18
SCFI (p) (9/24)	4,643.79	0.46	0.46	7.00	22.68	229.45
DDR4 8G (10/6)	3.93	0.00	-1.26	-7.53	-18.80	44.49
NAND TLC 128G (10/6)	2.06	0.00	0.00	-1.44	-0.96	24.10

금융시장 주요 지표 II

2021. 10. 7 (목)

유가증권시장			10/06 (수)	10/05 (화)	10/01 (금)	09/30 (목)	09/29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PI		2,908.31	2,962.17	3,019.18	3,068.82	3,060.27
	이동평균	20일	3,109.95	3,123.33	3,135.57	3,144.58	3,148.35
		60일	3,176.13	3,182.41	3,188.13	3,192.69	3,196.24
		120일	3,196.39	3,198.28	3,199.70	3,200.73	3,201.30
	이격도	20일	93.52	94.84	96.29	97.59	97.20
		60일	91.57	93.08	94.70	96.12	95.75
	거래대금(억원)		156,685.9	153,155.4	129,440.1	149,428.5	151,370.1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30	30	40	50	50
	ADR		60.90	65.00	75.30	71.95	80.46
코스닥시장			10/06 (수)	10/05 (화)	10/01 (금)	09/30 (목)	09/29 (수)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DAQ		922.36	955.37	983.20	1,003.27	1,001.46
	이동평균	20일	1,022.49	1,028.73	1,033.26	1,036.01	1,037.44
		60일	1,031.86	1,033.94	1,035.43	1,036.50	1,037.08
		120일	1,014.81	1,015.46	1,015.75	1,015.74	1,015.49
	이격도	20일	90.21	92.87	95.16	96.84	96.53
		60일	89.39	92.40	94.96	96.79	96.57
	거래대금(억원)		132,779.2	116,614.4	117,920.5	103,769.5	102,310.7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30	30	40	50	40
	ADR		50.72	54.76	63.06	62.10	80.46
자금지표			10/06 (수)	10/05 (화)	10/01 (금)	09/30 (목)	09/29 (수)
국고채 수익률(3년, %)			1.72	1.65	1.63	1.59	1.60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2.17	2.10	2.08	2.04	2.04
원/달러 환율(원)			1,192.70	1,188.79	1,188.03	1,184.08	1,182.04
원/100엔 환율(원)			1,068.82	1,065.14	1,062.95	1,064.49	1,060.84
CALL금리(%)			-	0.75	0.77	0.91	0.74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1,461	277	1,181	541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501	-507	456	129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129	37	9	150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694	3,432	980	-1,463
MMF 잔고(억원)			-	1,489,801	1,430,889	1,420,576	1,497,359
고객예탁금(억원)			-	708,794	697,746	683,463	669,528
미수금(억원)			-	3,476	3,906	3,907	3,452
신용잔고(억원)			-	244,807	245,838	248,393	249,859
해외 ETF 자금유출입			10/06 (수)	10/05 (화)	10/01 (금)	09/30 (목)	09/29 (수)
한국 관련 ETF(억원)			-	-282.0	-239.7	-	-
이머징 관련 ETF(억원)			-	-	-28.9	-38.7	117.2
아시아 관련 ETF(억원)			0.5	9.9	2.1	-1.3	-0.7
글로벌(선진) 관련 ETF(억원)			-	83.5	285.8	78.7	42.7
Total(억원)			0.5	-188.5	19.2	38.7	159.2

* 해외상장 ETF는 1) 미국, 유럽, 홍콩 시장에 상장된 한국 노출도가 있는 ETF를 모두 선별한 후, 2) 동 ETF들의 일간 자금유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계산하여 총합한 액수.

추종 인덱스의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이뤄지나 비중은 지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음